

제8회 바다의 날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인천시민과 해양수산업인 여러분,

제8회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20년 전 세계로 향해 문을 연 동북아의 관문, 이곳 인천항에서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 앞바다에 팔미도 등대가 세워진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560여개 등대가 하나 둘 불을 밝힐 때마다 우리는 바다로, 세계로 나아가 세계 10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등대 10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해양화의 역사요, 국력신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조선국, 세계 8위의 해운국, 세계 10위의 수산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해양강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해양수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등대 건립 100년, 인천항 개항 120년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해양부국을 향한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고 다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바다의 세기입니다. 바다는 이제 식량과 물류,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번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해양 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40%를 바다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궁무진한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태평양의 시대,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를 맞아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06년 동북아의 해상 물동량은 세계 전체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은 결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현실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동북아의 중심, 세계의 간선항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해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과 세계에 손색이 없는 정보화와 물류 기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인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동북아 물류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물류의 핵심은 해운·항만산업입니다. 저는 바다를 통한 물류 중심기지 구축이야말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인천항을 인천국제공항, 송도신도시와 연계해서 환황해권의 물류·비즈니스·금융·첨단과학·해양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핵심 물류거점으로 조기에 개발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물류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선진 해양국에 뒤지지 않는 해운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운세제를 개선하는 일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어업인들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조성해 나가는 ‘자율관리어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적인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촌공동체를 보다 가치있는 미래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해양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일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다를 멀리했던 과거 수백년 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북쪽길이 막히면서 바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는 바다를 통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다’라는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한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변방의 역사를 뛰어넘는 희망찬 미래로의 항해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호'가 동북아 경제중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항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소중한 바다를 가꾸고 활용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